



마크툽에 실린 황중환 교수 삽화

“순전히 내 생각만으로 작업해 즐거웠다”

코엘료 '마법의 순간' 이어 '마크툽'에 삽화 그린 황중환 조세대 교수

코엘료측에서 먼저 연락와 협업 작품 방향 어떠한 요구도 안해 달라이 라마 책 삽화 기획 중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황중환(46) 교수는 지난 2013년 파울로 코엘료(Paulo Coelho·68)가 펴낸 '마법의 순간' 삽화가로 참여하며 주목을 받았다. '마법의 순간'은 코엘료가 트위터 상에 올렸던 짧은 글을 엮은 책이다. 당시 황 교수는 코엘료 글과 자신의 삽화를 엮어보자고 출판사측에 요청했고 그의 그림을 본 코엘료측에서 수락하며 책이 나왔다.

지난 2월말 발간된 코엘료 신작 '마크툽(Makhtub)'(자음과모음)에서도 황교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1일 그를 만나 코엘료와 다시 작업한 소감과 참여 배경 등을 들어봤다.

“2014년 말 코엘료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마법의 순간' 반응이 좋았던 터라 다른 책과 관련해 언젠가는 연락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죠.(웃음) 저도 코엘료와 함께 하는 작업은 언제나 환영이기 때문에 바로 승낙을 했어요.”

“마크툽”은 아랍어로 ‘모든 것은 이미 기록돼 있다’는 뜻. 코엘료가 브라질 신문 ‘라 폴라 지 상 파울루’에 1993년부터 1년간 연재한 글을 선별해 실었다. 코엘료는 저자노트에서 “11년 동안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친구·동료에게 들은 이야기 등 삶의 지혜를 이끌어내는 내용이다”고 소개했다.

황교수는 “처음 원고를 받아 보곤 평소 내가 했던 생각들과 내용이 많이 일치했다”며 “공교롭게도 작가가 이 글을 썼을 때의 나이(45)와 지금 내 나이가 비슷해서 더 공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용을 읽다보니 책 제목이 반어법으로 쓰여진 걸 알게됐죠.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마음속 영적 보물은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 없어진다고 조언하죠. 작가가 가장 왕성히 활동하던 시기에 했던 고민들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책에는 코가 길고 수염이 덩수룩하게 난, 귀엽

게 생긴 노인이 자주 등장한다. 코엘료가 책에서 자주 언급하는 스승을 묘사했다.

“스승이 실존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엄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죠. 코엘료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요. 그 정도 연륜과 인기를 얻으면 작가는 엄숙해지려는 경향이 있지만 코엘료는 끊임없이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눠요. 저도 만화를 그릴 때 동글동글하게 편안한 느낌으로 그리기 때문에 제 방식과 코엘료 생각이 잘 맞았어요.”

황교수는 코엘료와 직접 연락을 한 적은 없다. 오직 책으로만 만나고 생각을 나눴을 뿐이다. 언젠가는 만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일에 관해서는 아니라고 한다. 코엘료가 한 말이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도 때문이다. 황교수는 “작업을 할 때 코엘료 측에서 만화 방향을 미리 잡아주거나 요구사항은 없었다”며 “순전히 내 생각만으로 작업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삽화를 살펴보면 간결하면서도 지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고 연한 초록·파랑 등 단조로운 색깔이 눈에 띈다. 타블렛 등 디지털 기기 작업하는 요즘 만화가들과는 달리 황교수는 잉크와 펜, 붓을 사용했다. 디지털 보다는 최대한 아날로그 느낌을 살렸다.

초청 삽화가로 참여하긴 했지만 황교수는 자신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텍스트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그는 '마법의 순간' 발간 이후 지난해 10월 출간된 '달라이 라마의 행복'에도 삽화를 그렸다. 평소 코엘료와 함께 영혼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달라이 라마가 지난 1998년 펴낸 '행복'에 삽화를 더해 재구성해 보자고 제안해 출판이 이뤄졌다.

“한국 사람이 세계적인 지도자에게 먼저 책을 같이 내보자고 요청하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화는 민족, 국적, 인종을 뛰어넘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출판사 관계자들이 티벳까지 찾아가 달라이 라마를 만났죠. 현재 달라이 라마와 또 다른 책을 추진 중이에요. 해외 진출을 생각하는 많은 한국작가들에게 일단 부딪쳐보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홍익대 시각디자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황교수는 2006~2012년 동아일보에 재직하며 만화 '386C'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2년부터는 조세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두근두근 고물고물...달팽이 만나러 가볼까

광주시립미술관 5월~6월 19일 어린이 전시

광주시립미술관이 봄을 맞아 어린이갤러리에서 '두근두근, 고물고물'전을 5일부터 6월19일까지 개최한다.

이전 전시는 김업, 러은, 염순영, 이재문, 정하양, 정현성 등 작가 6명이 참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작품을 선보이고 각종 체험이 진행된다.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버려지는 폐기물을 작품소재로 활용하는 김업 작가는 폐전막으로 숲속 생명들을 위한 이불을 만들었다.

이재문 작가는 현옷을 이용, 어린이들과 아기수달 인형을 함께 만든다. 얼굴은 이 작가가 만들고 몸통은 전시장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조금씩 완성시켜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러은 작가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 키보다도 훌쩍 큰 투명한 큐브를 만들었다. 가립 천을 건고 들어가면 정면에 설치된 질판 위에 버리고 싶은 생각이나 희망을 쓸 수 있는 체험형 작품이다.

염순영 작가는 작품 전시와 함께 달팽이 코너를 만들었다. 달팽이 미로체험, 실제 달팽이 만남, 달팽이 분양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정현성 작가는 무관심으로 쓸쓸해진 놀이터를 찾아온 동물 친구들을 표현한 작품을 출품했으며 정하양 작가는 '새싹이 자라는 집' 체험을 통해 풀, 흙 등 자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문의 062-613-715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이 5월 개최하는 '두근두근, 고물고물'전에 참여한 염순영 작가가 꾸민 달팽이 주제 전시장 모습.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성악아카데미 신인음악회 7일 광주문예회관

성악아카데미 제62회 신인음악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출연진은 목포대, 광신대, 전남대, 호신대 등을 졸업한 신예 소프라노 백예원·임애경·윤세희·양효빈·정유진·김아라, 테너 선현일·김정호 씨다. 피아노 연주는 황자영·손지영·이승은 씨 등이 맡았다.

이들은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푸지나의 '라 보엠', 베르디의 '리골레토', 도니제티의 '담메르무어의 루시아' 등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를 들려준다. 또 최영성 곡 '그리운 금강산'을 비롯해 슈베르트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곡도 선사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3656-803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위작 시비 천경자 미인도 내가 그리지 않았다”

위작자 주장 권춘식씨 입장 번복

위작 파문이 인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과거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해 온 권춘식(69)씨가 입장을 번복했다.

권 씨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78년 위작 의뢰자에게 3점을 그려줬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 스스로 미인도와 착각해서 말한 것 같다”며 “이때 ‘내가 직접 그렸다’가 아니라 ‘그린 것 같다’고 여지를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관련 사건을 다룬 방송 취재를 접하다 보니 미인도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림이 낡았었고 그렇게 작은 그림을 그린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검사가 복사본을 보여준 것 같은데 국립현대미술관 것(미인도)도 내가 한 걸로 문둥 그려 말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옛날 사건 중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었고, 언론의 동정을 받고 싶었다고나 할까”라고 말을 이었다. 권 씨는 문제의 미인도를 “내가 그린 게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기존 주장을 번복한 배경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스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에 위조범으로만 나오니 부담이 됐다”며 “그간 논란에 시달렸는데 이제 그만(논란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씨가 스스로 미인도의 위작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천 화백 사망 이후 가결된 미인도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연합뉴스

채널A 종합뉴스

가장 빨리,
매일 저녁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

김설혜 보도본부 기자

매일 저녁 7시 20분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